

* 팀NO : 2018- ~~3829~~ 29

2018 단기선교팀 신청서 (1)

선교위원회 확인

1. 신청부서 : 8교구 4팀 / 교회학교 (중1, 2, 3, 고, 대, 청1) *항공원구매: (자율, 교회)

2. 선교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03 (공항 : 자카르타)

3. 사역기간 : 2018 년 8월 11일(토) ~ 8 월 18일 (토) / (7)박(8)일

담 당

분과장

위원장

이영준 5/20

김영환

이영석 5/23

NO	직책	직분	성 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 소
1	팀장	집사	박성철 PARK SUNG CHUL	8		93-1321				
2	총무	권사	민병옥 MIN BYUNG OK	8		82-328				
3	서기	권사	이복순 ✓ LEE BOK SUN	8		2002-0199				
4	회계	권사	지아연 JI A YOUN	8		1980				
5	의료	권사	인영자 ✓ IN YOUNG JA	8		2199				
6	부회계	권사	김영자 ✓ KIM YOUNG JA	8		87-463				
7										
8										
9										
10										
11										
12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2차심사후 3차심사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교구(부서)장

교구(교육)위원장

김민수

소 감 문

작성자 : 박성철 집사

팀명 : 2018년 8교구 4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천 명 중 87%가 무슬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소수 10%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많은 핍박과 불이익을 받아 우리와 함께 사역한 현지 교회 (비지간동, 밀알교회) 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최빈곤층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무료 유치원을 운영하며 청년들에게 제자훈련을 시키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모습에서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기간 내내 심방사역을 통하여 믿지 않는 성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 귀신들린 자, 가난한 과부 등 고통 받는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과 찬양,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다가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청 잔치에 새신자 20명 이상이 왔고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현지 교회에도 큰 기쁨과 부흥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팀원들의 밝은 웃음과 섬김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또한 단기선교는 하나님과의 여행이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다시금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8-4월

지 아 연

이번 선교를 갈수 있을까? 하면서 열악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훈련하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트 밀알교회를 통하여 협력 선교를
하게 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 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인데 그 속에 예수님의 큰 빛을
비추 주시어 주님을 바라보며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참으로 귀하다

환경이 널 열악한 가운데 서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인하여
저들의 찬양과 기도가 상달되어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기대하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예수님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하며 많은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 합니다

소감문 (인도네시아 8-4팀)

87-463 김영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하하는 일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섯 명의 팀원 모두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심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자 애통한자
병든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찾으신 것처럼 그 땅에
도 그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하고
영혼에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서 와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여달라고
소리 없는 바람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소감문

나를 행하시고 영혼 구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도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보내주신 주님의 백성을 만나게

하시고 뜻 영혼 하나 하나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무한감사 합니다

새생명을 20 명이나 구원해주시고 감사. 감사 합니다

곳에 영혼을 기르시는 하나님 영광 있는자로 기르신

사랑에 중심에 백배 열매 맺게 주셔서

자카르타에 주님의 뜻이... 그나라가 무슬림이 ~~아~~ 사라지고

예수님의 영광에 빛이 임하 시옵 세 세

8-4 인 영 자 (천사)

소감문

8-4라

미복을 치사

우리는 7박8일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 선교사역을 갔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국교로 기독교인들은 성전회개도 하지 못하고 많은 헌양과 예배와 감사로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이며 생활은 도시변방 쪽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헌양 기쁨 마음으로 또렷하게 또렷하게 헌양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이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습에 도전을 받고 격려를 하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어려운 헌양과 예배와 헌양가운데 있는 말씀들에게 하나님께사는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또렷하게 사랑하시며 지키고 인도하시게 ...

이웃-주님의 말씀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믿음을 사서 기쁘고 또렷하게 감사와 헌양과 헌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강하게 응회하시며 생령충만한으로 영사하시며 즉 스테판 집사의 순교(제명)처럼 ...

주님의 말씀들은 무수한 무지들 중앙에 생어놓으며 날마다 예수님의 보혜사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인도하시며 즉 우뚝은 상상하며 예수님의 의인화로 우뚝한은 가득가득 채우시며 무수한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쳐 주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와 함께 되어지고 기뻐합니다.

마침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8교구 4팀

인도네시아

빈 병옥

해마다 휴가를 단기선교로 다녀왔습니다.

올해에는 인도네시아로 박성철 팀장과 함께 6명이 다녀왔습니다.

3개월의 준비 훈련과 팀원의 건강 이상도 기도로 극복하며...기도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다녀와서 그 도시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심한 매연 ㅈㅈ... 숨쉬기도 힘들고 눈도 뜨기 힘들 정도의 매연.
저마다 바빠 쓸수없는 오토바이로 겹치다니는 환경과 교통마비.

그속에 영과 육이 병든 사람들....

그럼에도 우리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왔습니다.

현지 교회 목사님을 통해 교회 교인을 심방하며 믿지 않는 식구와
이웃에게 그리고 공원에서 8명의 노방전도가 되었습니다. ㅈ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90%의 무슬림... 전하면 불법입니다. 너무 쓸쓸한 영혼들

하세님! 어찌할게야요 저들을.... ㅈㅈ

가슴만 아파옵니다.